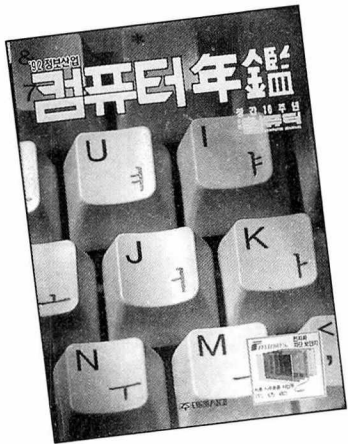


국내외 관련정보 집대성한 자료집

월간 컴퓨터 엮음 「컴퓨터年鑑」



컴퓨터 및 정보산업 분야에 걸친 국내외 자료를 집대성한 책으로 「월간 컴퓨터」 창간 16주년 기념으로 발행됐다.

정보산업 관련업체를 비롯해 학회 및 단체, 학교 및 학원, 연구기관 등과 일반 정보산업 종사자들에게 충실한 안내서 역할을 하도록 편집된 이 책은 모두 8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장에서는 먼저 국내의 정보산업의 현황과 발전계획 및 미래를 진단한 다음, 이어서 해외의 정보산업의 동향과 정보산업 정책을 다룸으로써 국내외 정보산업의 개괄적 지형도를 그려보이고 있다.

제2장에서는 국내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컴퓨터 및 관련기기들을 기종별로 제품사진과 제품사양을 컬러로 수록, 국내 공급기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제3장에서는 컴퓨터 공급업체별 유택리스트를 도표로 정리해

주고 있다.

제4장 '컴퓨터 관련업체 명단'에는 2천5백여 컴퓨터 및 정보산업 관련업체가 수록돼 있는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주소, 자본금, 사업내용을 비롯해 각 제조업체의 대리점과 협력업체, 컴퓨터 전문상가 및 게임 유통상가의 현황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밖에 제5장과 6장에는 국내 정보산업 관련인사 및 교수, 정보처리 기술사 등의 직장 및 연락처와 함께, 전국의 컴퓨터 관련 대학과 학원의 주소와 연락처를 명시했고, 제7장에는 정보산업 관련법규들을 정보통신·컴퓨터프로그램 보호·정보산업 기술촉진 관련법령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현재 국내에서 발효중인 국제협약들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했다.

제8장은 자료편으로 구성됐는데, 정보산업 관련단체 및 정부출연기관 명단, 각종 프로그램 등록 현황, 컴퓨터 관련제품 특허목록, 해외 관련업체의 국내진출 및 관련기술의 도입 현황 등을 수록해 전문가나 일반인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권말에 따로 정보산업 관련 출판사 및 도서목록을 실어 눈길을 끄는데, 총론·하드웨어·베이직·코볼·포트란·어셈블리·파스칼·데이터·패키지·OS·기타언어 부문 등으로 나누어 정리한 도서목록은 이 분야 관련도서 출판현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미래시대 / B5 / 832면 / 30,000원

서울 및 서울근교의 가볼만한 식당

「이브닝 서울」 「드라이브 앤드 디너」



분류,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주차규모와 카드사용 여부가 명시돼 있는 점, 그리고 음식에 관한 명사들의 에세이가 함께 수록돼 있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만하다.

포켓북 형태로 나온 「드라이브 앤드 디너」는 「이브닝서울」이 서울지역 식당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주말이나 휴일 한나절 승용차를 이용해 다녀올 수 있는 서울근교의 식당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라이브코스 외식정보를 결합한 독특한 레저정보지로 눈길을 끈다.

통일로 방면, 여주·이천 방면, 양평 방면, 강화 방면, 인천 방면 등 11개 방면 60여 지역의 근교 식당 70여곳을 상세한 지역지도와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철저한 현장확인 취재를 바탕으로 소요시간, 도로상황, 음식점 분포도, 서비스의 수준, 경관 및 분위기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권말의 '인덱스' 편은 본문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을 다시 거리별·메뉴별·지역특성별·레저공간별로 분류, 도표로 제시해주고 있어 사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승용차 보유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느긋하게 출발해서 여유있게 즐기고 늦지 않게 돌아온다"는 기준들을 충족시킬 만한 곳을 가려뽑아 소개했다는 것이 엮음이의 말.

이브닝서울 : 차림 / A4 / 244면 / 15,000원

드라이브앤드디너 : 차림 / B6 / 224면 / 5500원

외식의 일상화와 외식산업의 발전으로 이제 식당은 단순히 음식만 먹으러 가는 곳이라기 보다는 만남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돼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음식의 질이나 가격은 물론 분위기나 교통편의까지를 따져가며 식당을 선택하곤 하는데, 이 책 「이브닝서울」은 그같은 식당선택의 한 지침서로서 "출발하기 전에 갈 곳에 정할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서울의 가볼 만한 식당들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다.

지난 89년의 창간호에 이어 제2권으로 선보인 이 책에는 메뉴·특징·지역별로 가볼 만한 식당이 컬러사진과 약도를 곁들여 소개돼 있어 식당선택에 따르는 망설임과 미심쩍음을 덜어주고 있으며, 특히 '연인끼리 가기 좋다' '간단히 한잔 하기 좋다' '정중한 대접에 적합하다' 등 식당의 분위기를 모두 18가지로

“ 씨받이가 필요하다? ”

글이랑에 심으십시오.

참신한 기획과 그에 따른 원고 집필, 아동 원고의 완벽한 교정·윤색·내용에 맞는 디자인의 편집·번역까지 글이랑은 책 낳는 모든 일을 합니다. 풍성한 수확물로 돌려 받으십시오.

도서출판 글이랑

110-550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성우빌딩 307호
전화 : 235-1868·237-6724 팩스 : 237-6724

출판경영이야기 · 1

“ 한푼이라도 아껴야지 ”

어느 출판사 사장님의 탄식어린 말씀입니다.
출판을 일확천금의 쫓다판으로 여기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만,
출판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수천개의 출판사가 하루에도 수백종의 책을 시중에 내놓고 있습니다만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습니다.
적은 비용을 들고고도 깔끔한 책을 만들어 내는 것,
출판경영의 첫걸음입니다.

원고지 1,200매 300쪽 소설기준으로 127만원(표지별도)이면
필름제판까지 끝내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기획
TRANSLATION
EDITORIAL

서울 마포구 아현동 603-15번지 Tel. 02 393-9543/9544 Fax. 02 393-9564
부산 북구 감전동 127-2 Tel. 051 323-3945/327-3920 Fax. 051 324-7888

한국명작동화 리바이벌 시리즈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선물」



어린이날 제정 70주년을 기념해 출판된 한국 명작동화 리바이벌 시리즈로 전 3권 1세트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제1권 「사랑의 선물」(방정환)은 어린이를 위한 최초의 창작동화집으로 알려진 책. 아무도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던 때에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그들을 인격체로 대할 것을 주장하며 어린이날을 제정한 방정환이 직접 창작하거나 번안한 동화 25편을 '무서운 두꺼비' '미련이 나라' '두더지의 혼인' '옛날 학교 이야기' 등 4부로 나누어 묶었다.

제2권 「떡배 단배」는 일제치하의 우리나라 현실을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일깨운 마해송의 대표작 모음. 본격적인 창작동화 작가로는 거의 최초의 인물인 마해송의 작품에는 한결같이 나라와 겨레, 어린이에 대한 사랑이

흐르고 있는데, 「토끼와 원숭이」 같은 동화는 일본에 대한 나쁜 감정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일제하에서는 책으로 소개되지 못한 채 구연으로만 들려지다 나중에야 출판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토끼와 원숭이」 「떡배 단배」 「바위나라와 아기별」 「들국화 두 포기」 등 4부로 나눈 가운데 모두 19편의 작품을 수록했다.

제3권 「나는 겁쟁이다」는 동요집 「호박꽃 초롱」 동화집 「조그만 사진첩」을 펴낸 바 있는 강소천의 작품집. 평생을 꽃과 어린이에 대한 사랑으로 지내며 1957년에는 '어린이현장'의 기초를 잡기도 한 강소천은 특히 한국전쟁 이후 전쟁으로 인해 메말랐던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불어넣는 작품들을 주로 발표해왔는데, 그런 점에서 그의 작품은 흔히 '교훈성이 높은 동화'로 평가된다. 고향과 부모를 잃은 전후 어린이들의 슬픔을 아득한 그리움의 음악처럼 그려보이고 있는 명작 「꿈을 짚는 사진관」을 비롯해 모두 18편의 작품을 '꿈을 짚는 사진관' '나는 겁쟁이다' '꾸러기와 몽당연필' '돌맹이' 등 4부로 나누어 묶었다.

각권의 서두에 아동문학가 김요섭의 해설을 실어 작가와 작품의 이해를 돕는 한편, 방운용(색동회 이사) 마종기(시인) 강남향(서울시립대 강사) 등 자제들의 아버지에 대한 회상기를 권말에 실고 있으며, 삽화는 모두 강남향이 맡아 했다.

신구미디어 / A5신 / 각권 250면 내외 / 각권 4000원

잘 알려졌지만 새로운 해외명작동화

「민음사의 어린이책」 '영미동화' 시리즈



상인 '뉴베리상' 수상작으로 노예로 태어나 어릴적부터 스페인 제일의 궁정화가 벨라스케스의 잡일을 도와주는 '후안'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노예의 예술행위를 금하는 스페인에서 후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화가로 입신하게 되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성인물로 더 익숙한 윌리엄 포크너의 「마법의 나무와 작은 새」(이현숙)는 포크너의 단 하나뿐인 동화로서 꿈속에서 벌어지는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펼쳐지며, 윌리엄 사로안의 「내 이름은 에이럼」(설순봉)은 서커스를 구경하려고 학교를 빼먹기도 하는 말쑥꾸러기 낙제생 '에이럼'과 그의 '멍청한' 삼촌들이 벌이는 갖가지 우스운 사건들을 그리고 있다.

「세계민화집」(전5권·서정주 지음)과 「현대프랑스동화」(전10권·김화영 책임편집)에 이은 '민음사의 어린이책' 시리즈 제3차분. 김우창교수(고려대 영문과)의 책임편집 아래 영미권의 명작동화 및 소설을 7권으로 묶었는데 "이미 잘 알려진 작가와 작품을 피하지는 않으면서도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작품들을 고르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이 김우창교수의 말.

이중 「숲동네 친구들」(앨런 엘릭샌더 밀른 지음 / 송무 옮김)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래 영국에서 가장 널리 읽힌 어린이책으로 같은 작가의 「위니 더 푸」의 속편격. 숲동네 동물들의 세계를 통해 행복한 꿈의 세계와 어른세계의 서글픈 미래를 같이 보여준다. 미국의 여류작가 엘리자베스 보텐데 트레비노의 「나, 후안 데 파레하는...」(김우창)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청소년문학

그밖에 「장롱 속의 사자와 마녀」(클리브 루이스 / 문희경)는 '나르니아'라고 불리는 환상의 나라에서 겪는 모험담을, 「난쟁이 켈로우」(제임스 서버 / 이상옥)는 평화로운 '초승달거리'의 사람들이 거인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의 마을을 지키는 이야기를, 그리고 「코핀성의 벽시계」(제임스 서버 / 이상옥)는 심술궂은 왕에게 시달리는 착한 공주를 구원하는 용감한 왕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각권마다 모두 '저학년용' '고학년용' '전학년용' 등의 연령별 표시가 되어 있어 책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새로운 특징이다. 민음사 / A5신 / 각권 80~290면 / 각권 3000~3800원

기획·편집·디자인에 제작까지 잘 할 수 있는 편집장

● 좋은 편집장 한 분만 구해 주십시오

출판경기가 최악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지금도 안면없는 거래처에서 가장 많이 걸려오는 전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정은 잘 보는데 디자인 감각이 좋지 않아서... 기획력은 있는 것 같은데 실수가 약해서... 일은 잘 하는데 인간관계가... 기획·교열·교정·디자인에 심지어 제작까지 할 줄 아는 편집장, 부하 직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편집장, 그런 분을 소개해 주십시오.

● 미안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조금씩은 다 할 줄 알지만 전부 다 잘하시는 분도, 한두 가지는 잘 하지만 모든 것에 유능하신 분도 안 계십니다. 편집은 총체적인 일이지만 지금 그런 르네상스적인 편집장이 있었습니까? 또 설령 그런 분이 있다 해도 쉽게 자리를 옮기겠습니까?

● 나누어서 일합시다

교열이나 교정은 숙달된 교정자가, 디자인은 훈련된 감각을 가진 디자이너가, 기획은 영업자와의 토론을 거쳐서, 제작은 공정을 잘 아는 제작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여름새벽은 편집과 디자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편집자의 기획의도를 제작물로 구현해 내는 일, 그것이 저희들이 가장 잘 할 줄 아는 일입니다.



표지·문본디자인·출판광고디자인·단행본·잡지·사보편집대행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62-63 전화/325-4963·4 팩스/325-4965